

# 醫案 학습효과에 대한 연구

강정수 · 김용찬 · 신현규<sup>1</sup> · 김병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1: 한국한의학연구원

## Study on Effect of Learning Treatment Chart

Jung Soo Kang, Yong Chan Kim, Hyeun Kyoo Shin<sup>1</sup>, Byung Soo Kim\*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Physiology, Daejeon University, 1: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reatment chart(醫案) is a document that doctors have described about their own practice. Western doctor's chart has a prescribed form, but otherwise chart of oriental medicine is a free form. As It has no prescribed form, doctors of oriental medicine have recorded important facts that they think especially. For example, details are patient's name, age, sex and address, the name of disease, state of pulse and tongue, state of secretions(stools, urine, perspiration, etc.), color of face, state of sleep and thirst, diagnosis, prescription, improvement of herb, teaching, and so forth. If we study on chart of oriental medicine, we draw a lesson about practices of a famous doctors. Through that we can increase ability of diagnosis and adaptation to circumstance, make ourselves familiar with use of past prescriptions and way of changing prescription, and learn narrative story of past doctors' personal experience, their though and teaching. As chart of oriental medicine had many methods to take a measure to meet the false situation, we can learn that. Through chart of oriental medicine, we can improve our practice of oriental medicine.

Key words : treatment chart(醫案), example of practice of oriental medicine

### 서 론

醫案은 脈案·方案·診籍이라고도 하며, 醫案은 환자의 症狀·病因·脈象·舌象·病機·診斷·轉變·치료원칙·주의사항 등을 분석하여, 약물의 명칭, 분량, 포제방법, 복용법 등의 치료방법을 기록한 자료이다.

서양의학의 진료기록부가 환자의 건강상황과 질병의 발생·진행 및 진료의 전과정을 기록하고 그 중에 이용가치가 있고 전문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진료 자료인데 반하여, 醫案은 환자의 증상과 몸의 상태를 모두 기록하지 않고 의사의 주관적인 생각에 진단의 가치가 비교적 큰 증상과 경과를 기록하여 辨證論治가 명확하게 파악되도록 한 자료이다. 따라서 진료기록부는 병의 종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醫案은 醫家の 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名醫의 醫案을 읽는 것은 임상수준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된다.

周代 御醫는 醫案의 기록을 중시하여, 매년 이것으로 의료 수

준을 심사하였다. 기원전 167년, 漢代 醫家인 淳于意는 漢帝의 질병정황을 病案으로써 회답하였는데, 이 病案을 일러 '診籍'이라고 하였다(『史記·扁鵲倉公列傳』). 宋代에는 학생의 실제적인 의료기술의 훈련을 중시하여 醫學生으로 하여금 고대로 병을 치료하게 하여 사람마다 印紙를 발급하여 치료의 경과와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의 名醫인 錢仲陽·許叔微 등은 『小兒藥證直訣』, 『普濟本事方』의 저서에서 首에 먼저 經驗方案을 덧붙이고, 논설하여 證을 보좌하였는데, 이후에 金·元·明의 諸醫家 등이 모두 이를 본받았다. 醫案은 清代에 크게 발전을 하였는데, 이 시기의 대표적인 醫家家로는 葉天士·吳鞠通을 들 수 있다. 葉天士 醫案을 經華·岫云 등이 수집·정리하여 『臨證指南醫案』을 편성 간행하였는데, 葉氏의 醫案은 이치를 분석함에 조예가 깊고 方藥에 재주가 뛰어나며 按語에 통달한 특징이 있다. 吳鞠通은 證治方藥을 葉氏醫案을 따라서 연역하고 변화시키고 다듬어서 『溫病條辨』을 저술하였다.

근대에 이르러 章太炎은 "中醫之成績, 醫案最著"라 하고, 陸淵雷는 "宋後醫書, 多偏玄理, 惟醫案俱事實精核可讀, 名家工巧悉萃于是 ... 學者欲求前人之經驗心得, 讀醫案最有線索可尋"이라고 하여 醫案 학습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omdkjs@dju.ac.kr · Tel : 042-280-2617

· 접수 : 2005/03/29 · 수정 : 2005/04/30 · 채택 : 2005/05/27

현대 중국에서는 上海中醫專門學校 규정에 의거하여 의안을 학습하고 있으며, 上海中醫學校·上海中醫醫學院·蘇州國醫學院·華北國醫學院·蘭溪中醫專門學校 등에서 모두 醫案課를 개설하였거나 혹은 醫案 강의가 진행 중이나, 국내 한의학계는 醫案에 대한 연구가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다.

이에 醫案학습의 중요성을 깨닫고 『醫案助讀』<sup>1)</sup>을 중심으로 연구하던 중 다음과 같은 지견을 얻었기에 발표하는 바이다.

## 본 론

### 1. 醫案의 의의

醫案은 진료에 대한 기록이자 자료로, 학술연구와 후학 양성에 있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 1) 醫案은 임상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醫案은 임상 기록으로, 치료 사실은 상대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하니, 어떤 증상에 어떤 처방의 약물을 써서 어떤 치료 효과를 얻었는가 등이다. 惲鐵樵는 醫案 정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서의 진실한 가치는 방약에 대한 의론에 있지 않으니, 의론은 빈말이 많지만 약효는 사실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의안을 선별하여 새기는 것이 간절하다.”라고 하였다. 醫案은 연구자에게 질병의 진단·치료·전변예후·流行病歷 및 의학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러한 연구는 각종 방제, 약물의 응용범위·응용방향·감변화·배오·제량범위, 劑型 등의 측면에서 큰 힘을 제공한다.

2) 醫案은 임상외에게 중요한 지침서이다. 醫案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辨證論治에서 正法에서 變法까지 능력을 길러준다. 余聽鴻이 말하기를 “醫書가 비록 많으나 두 가지 뜻밖에 나오지는 않는다. 經文·本草·經方은 학술 기준의 근원이고, 經驗·方案·필기는 민활하게 깨닫고 變通하는 用이 되니, 두 가지를 모두 아울러야 傳하여도 쇠퇴하지 않는다.”(『外證醫案匯編』)라 하였다. 둘째, 醫案은 名醫의 학술사상과 경험을 수록한 것이므로 의사의 능한 바를 엿볼 수 있다. 근대 의가인 周學海가 말하기를 “각각의 의가의 의안 가운데에는 반드시 평생에 가장 노력한 바를 얻을 수 있으니, 마음을 세밀히 하여 두루 읽으면 여러 의가의 장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셋째, 문학적으로 빼어나고 아름다운 案語는 의학의 어휘를 풍부하게 한다.

3) 醫案은 의료 수준을 평가하고 醫家가 得失한 실증적인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宋代 太醫局의 醫案같은 경우에 학생의 성적에 의거하여 논평하였고, 陸九芝는 溫病學家에 대하여 평론할 때 葉天士의 醫案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 2. 의안의 유형 및 독법

#### 1) 의안의 유형

醫案은 유형에 따라 實錄式 의안, 追憶式 의안, 病歷式 의안 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實錄式 醫案

1) 黃煌, 醫案助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實錄式 醫案은 ‘脈案’이라고도 하니, 醫家가 진료할 당시에 기록한 것이다. 앞에는 案語라는 醫論을 적고, 뒤에는 일반적으로 처방전에 약물을 기입한다. 이 醫案의 특징은 病情기록이 비교적 진실하고, 藥物·劑量·炮制 등의 항목 또한 상세하게 기록되어 醫家의 진료의 원형을 충실하게 수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實錄式 醫案은 各家의 案語와 기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6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 먼저 증상을 서술하고 뒤에 病因·病機를 분석한 후,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낸다. 【案 1】과 같다.

【案 1】<sup>2)</sup> 王씨 할머니. 寒熱하고 嘔惡하며 飲食을 먹지 못하고, 복통으로 痢下를 하룻밤에 50~60차 하고, 赤白이 서로 섞이며, 裏急後重하고, 舌苔는 膩布하며, 脈象은 浮緊數하다. (이는) 時氣에 감수한 邪가 表分에 침습한 데다 濕熱이 挾滯하여 서로 腸胃를 막아 생긴 噤口痢의 重症이다. 먼저 解表導滯해야 한다. 荊芥·防風·豆豉·薄荷葉·半夏·枳實·桔梗·赤芍·神麩·焦楂·生薑·紅茶·藿蘇梗. 玉樞丹을 끓인 물에 먼저 四分을 沖服한다.

② 먼저 病機를 기술하고 뒤에 증상을 기술한다. 【案 2】와 같다.

【案 2】<sup>3)</sup> 錢氏 18세로 陰虛內熱로 腸紅이 그치지 않는다.

炒黑梲根皮一兩, 炒生地三錢, 炒銀花一錢半, 炒黑地榆二錢, 當身一錢半, 生白芍一錢半, 炒丹皮一錢, 茯苓一錢半.

③ 病狀이 생긴 이유를 거듭 분석하여 주된 원인을 찾아 결론을 도출한다. 【案 3】과 같다.

【案 3】<sup>4)</sup> 眞陽氣가 弱해지면 筋을 영양하지 못하여 陰縮이 되고, 裏를 굳건히 하지 못하여 精出이 되며, 表를 방어하지 못하여 汗泄이 된다. 이 세가지는 각각 서로 원인이 되어 나타나니 그 病은 三陰의 樞에 있어 後世의 方法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 古方의 八味丸을 오로지 장복하면 효험이 있다.

④ 證狀·病因·病機·診斷·治法 등을 결합하여 하나로 파악하여 서술하고 논술한다. 【案 4】와 같다.

【案 4】<sup>5)</sup> 蔡씨 할머니. … 肌肉이 柔白한 것은 氣虛에 속하니 겉에서는 풍부하게 넘치는 것 같지만 속은 실제로 크게 겁약하다. 대개 陽虛한 사람은 濕이 많고 痰이 많다. 肌肉은 거칠고 땀이 흐르며, 脣舌이 모두 白하고, 乾嘔하고 胸痞하며, 煩渴引飲한 것은 脾胃의 陽이 상하여 축박한 것으로 邪氣가 中宮에 침람되게 응크리고 있고, 머무르고 쌓여서 풀리지 않아 正氣는 衰하고 邪氣는 疰한 것이다. 脈이 短澁한 것은 無神한 것이며, 陽衰하고 邪氣가 잠복되어 있음이 현저하다. 하물며 寒涼으로 熱을 공격할 수 없고, 淸邪는 곧 상하게 하니 胃陽藥을 주어야 한다. 지금 곡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막연하고 대변이 점점 드물어지니 만약 급히 胃氣를 和하지 않으면 따를 법이 없다. 이른바 肥人의 병은 그 陽이 虛함을 고려해야 한다. 人蔘, 半夏, 生于朮, 枳實, 茯苓, 生薑.

⑤ 문장을 중시하여 사료번려체를 써서 注한 醫案이 있다. 【案 5】와 같다.

2) 沈仲理 主編, 丁甘仁臨證醫集, 上海,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1999, p. 64.

3) 姜계상·구삼희·김재영 편저, 葉天士臨證指南醫案, 서울, 정담, 1998, p. 575.

4) 柳寶詒, 柳選四家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p. 7-8.

5) 姜계상·구삼희·김재영 편저, 葉天士臨證指南醫案, 서울, 정담, 1998, p. 314.

【案 5】 6) 병이 곧 일년이 되는데, 肝氣가 橫逆하여 平하지 않고, 中氣는 오랫동안 虛하여 떨어져서 않는다. 오직 肝逆하므로 胸脘이 막혀서 攻沖하고, 오직 中虛하므로 營衛가 不和하여 寒熱한다. 무릇 大便溏하고, 飲食은 적으며, 右脈은 細하고, 左脈은 弦한 것이 그 證이다. 四君子合逍遙에 左金을 加한 것이 그 처방이다. 黨蔘, 冬朮, 茯苓, 柴胡, 白芍, 川連(吳萸炒), 香附, 陳皮, 當身, 神麩, 穀芽, 玫瑰花.

⑥ 몇마디 말로 主證과 主脈을 도출한다. 외래 진료의 方案에 많다. 【案 6】 과 같다.

【案 6】 7) 西門陳 남자. 痰飲咳嗽하고 脈은 雙弦하므로 十棗湯으로 主했다. 制甘遂一錢, 炙芫花一錢, 大戟末一錢, 大黑棗十枚.

(2) 追憶式 醫案

추억식 醫案은 의사가 회고한 후에 기록하는 것이다. 지난 것을 기록하므로 '醫話性 醫案'이라고도 부른다. 진료과정 및 치료효과가 비교적 명백하다. 醫案에는 醫家の 變證用藥이 있고 글도 비교적 생동감이 있으며 읽기 쉽고 이해하기 좋다. 이러한 종류의 醫案은 醫家가 평소에 겪는 것 중 학술가치가 있거나 혹은 비교적 깊이 체득한 병례를 총결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항상 작자의 논저가 證을 보충하거나 혹은 작자의 어떠한 하나의 학술관점으로 기록한다. 아래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 질병치료의 과정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비교적 議論이 적고 治驗이 많다. 宋·金·元·明의 의학저서 가운데 이러한 종류의 醫案이 많다. 【案 7】 과 같다.

【案 7】 8) 南郷의 陳君俞는 가을이 올 것을 알 수 있으나, 頭項이 한쪽이 부어서 한눈에 이어져서 물병의 반과 같고 그 脈이 洪大하다. …… 『內經』에 面腫한 자는 風이라 하였으니, 이는 風이 陽明經을 탄 것이다. 陽明은 氣血이 모두 많고, 風腫은 汗해야 마땅하니 이에 通聖散에 生薑·葱根·豆豉를 넣어서 한 큰잔에 함께 끓여서 투여한다. 복용하여 微汗하고, 다음날 풀가지로 코속을 찔러 크게 出血하였더니 곧 사그라 들었다.

② 醫者の 辨證論治의 과정과 경험을 상세히 기술한다. 【案 8】 과 같다.

【案 8】 9) 松江王의 孝賢夫人이 평소에 血證이 있는데 時發時止하고 發하면 微嗽하였다. 또한 感冒가 변하여 痰喘이 됨으로 인하여 자리에 눕지 못하고 밤낮으로 안석에 기대어 앉아서 결국에는 버틸 수 없게 되었다. 당시 常州의 名醫인 法丹書가 調治하여도 효과가 없어서 나에게 이르러서 되었다. 내가 말하였다. “이는 小青龍證입니다.” … 本病을 治하면 죽으니 죽어도 원한은 없으나, 麻桂를 써서 죽을 것 같으면 病本을 無治하는 허물은 없더라도 麻桂로 죽이는 恨이 됩시다! …. 복용함에 똥가 있다면 내가 스스로 감당하겠으니, 단지 先生이 막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따라서 복용을 하였더니, 먹기를 마친 후에 氣가 平해져서 누울 수 있고, 마침내 저녁에 편안해졌으니, 그런 후에 消痰潤肺하고 養陰開胃의 方으로써 다음에 조리하였더니 휴식한 뒤에 이에 옛

날처럼 회복되었다.

(3) 病歷式 醫案

현대에는 서양의학의 형식에 영향을 받아 환자의 일반적인 正황·증상·병리·진단·요법·처방·효과 등의 항목을 나누어 기술하였는데, 이는 分類가 명백하고 기재가 비교적 전체적이다. 이를 病歷式 醫案이라 한다. 이 형식은 '辯'과 '論'의 비중이 경감되고, 읽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案 9】 와 같다.

【案 9】 10)

陳씨, 여자, 1939년 7월 1일 初診.

症狀 : 惡寒發熱, 汗出不徹, 下利腹滿, 苔白膩, 脈沈緊.

病理 : 涼風이 表를 간섭하고, 生冷이 傷中해서, 營衛가 不和하여 脾失運化하였다.

診斷 : 感冒

治法 : 마땅히 辛溫淡化를 준다.

處方 : 漂蒼朮15g, 川羌活9g, 粉葛根9g, 廣藿香3g(後入), 帶皮苓18g, 薑半夏15g, 大腹皮12g, 陳薤白9g, 川桂枝6g, 黃附片15g, 淡乾薑9g, 靈磁石30g, 炒澤瀉9g.

2) 醫案을 읽는 방법

案을 읽는 데는 정해진 法은 없으므로, 자기의 특징과 의안의 구체적인 正황에 근거하여 定해야 한다. 다음의 7종류의 방법은 서로 나눌 수 없으니, 서로 보완하여 사용해야 한다.

(1) 順讀法

順讀法은 醫案書에 기재된 順序에 의거하여 먼저 案語를 읽고 症狀·病因病機·診斷·治法을 해석한 이후에 다시 處方用藥을 보는 방법을 말한다. 이 법은 엄격한 실록식 의안 및 추억식 의안의 理法方藥을 읽는데 적합하다.

(2) 逆讀法

逆讀法은 먼저 處方用藥을 보고 方으로써 證을 헤아리고 藥으로써 證을 헤아린 연후에 다시 그 案語를 참고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종류의 方法은 案語가 간략하거나 혹은 겨우 主證을 예를 들거나, 혹은 겨우 主脈만 예를 들거나, 혹은 겨우 病機만 서술하고 증상은 기재하지 않은 醫案에 적합하다. 【案 10】 과 같다.

【案 10】 11) 頭痛에 少陽·陽明을 取하여 主治하는 것이 正法이다. 곧 前後의 구별은 手足을 나누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石膏, 竹葉, 生地, 知母, 甘菊, 丹皮, 黑梔, 橘紅, 赤芍, 桑葉, 蔓荊子, 天麻. 治按 : 이는 頭痛의 風火에 치우친 것이므로 用藥은 오로지 清熱 한 面만 중시하였다.

鄧評 : 이는 반드시 하나의 火盛을 보고 단서를 잡았다.

(3) 理讀法

理讀法은 의학이론에 비추어 案에 기재된 病名·病機·治法 등을 따라서 主證·主法을 추측하여 辨證論治와 處方用藥의 사고체계와 경험을 헤아리는 방법을 말한다. 前人 醫案의 기록법과 현재의 病歷기재는 같지 않으므로 현재 증상이 있는 것에 근거하여 辨證立法의 관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니, 비록 기재가 비교적 간략하더라도 단지 理論에 의거하면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陽黃'이라고 쓰면 곧 目黃·小便黃·皮膚色黃鮮明 등이

6) 柳寶詒, 柳選四家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143.

7) 黃煌, 醫案助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9.

8) 구병수·이동원, 儒門事親,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p. 263.

9) 劉更生 編, 醫案醫話醫論名著集成·洵溪醫案,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 315.

10) 『中醫雜誌·祝味菊醫案』1982(10):14

11) 柳寶詒, 柳選四家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126.

일련의 濕熱發黃證이므로, 시간이 있으면 표현되지 않은 증상도 감별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들은 醫理를 지나감으로써 그 숨어있고 發하지 않은 증상과 치법을 추측할 수 있다.

(4) 比較法

比較法은 연관된 것을 세우고 차이를 감별하는 방법을 말한다. 醫案은 醫家 한사람의 손에서 나왔으므로 醫家의 학술관점과 치료경험이 필연적으로 醫案 중에 반영되어 있다. 곧 한때 한사람의 손에서 나온 같은 종류의 醫案이 아니라도 단지 같은 종류의 질병이거나, 동일한 방제, 동일한 治法이라면 그 중에 필연적으로 착안점이 혹은 많게 혹은 적게 연관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病證·症狀·治法·方藥 및 醫家 등의 방면을 따라서 비교와 분류를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비슷한 수준의 醫家와 동일한 종류의 病證의 醫案을 비교하여, 病證의 辨證論治의 규칙을 해석하고 이해한다.

② 비슷한 수준의 醫家가 同一한 方劑를 사용한 醫案을 비교하여, 醫家가 이 方을 사용한 경험을 연구한다.

③ 한 종류의 病證에 다른 수준의 醫家의 醫案을 비교하여, 各家의 이 病에 대한 診治의 특징을 해석한다.

(5) 統計法

한걸음 더 나아가 의가 처방용약의 규율을 해석하고 탐구하는데 統計法을 사용할 수 있다. 處方의 용약규칙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統計法은 약물출현빈도, 배오규칙, 主治범위, 方과 證 및 藥과 證의 대응빈도, 劑量변화규칙 등을 통계하는데 적합하다. 질병의 발병규칙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성별·연령별·발병계절·脈舌·체격·증상 등을 중심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6) 推讀法

推讀法은 猜讀法이라고도 부르니, 案語를 완전히 읽고 책을 덮고 생각하여 그 用藥을 헤아린 연후에 다시 醫案과 서로 비교하여 그 차이를 구하면서 아울러 그 이유를 찾아내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종류의 방법은 독자로 하여금 긴밀하게 의안의 사고체계를 따르게 하고, 아울러 때에 따른 자기의 견해를 감별하여, 자기의 변증론치의 능력을 훈련하고 사고체계를 개발하는데 효과가 있다. 동시에 독자로 하여금 독서를 시작하는데 주의력을 집중시켜 案을 읽는 효율을 높인다.

(7) 評讀法

評讀法은 독서시에 비판과 주석을 더하는 것으로, 혹은 부호를 그리거나, 혹은 직접 책 위에 두세마디를 쓴다. 그 내용은 제요·구현·보충·인용·비판·질의·발휘·심등 등이다. 이러한 종류는 읽는 쪽, 쪼개는 쪽, 글쓰는 쪽, 생각하는 쪽의 方法에 案을 읽는 효율과 효과를 높이고, 案을 읽는 능력의 효과있는 방법을 높인다.

3. 醫案학습의 효과

1) 識證의 능력 증진

華岫云이 설명하기를 “醫道는 識證·立法·用藥에 있으니 이는 3대 관건으로, 하나라도 대충 넘어가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 세가지 중에 識證이 더욱 긴요하다. 法과 方 같은 것은 평소에 보는 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 識證에 이르러서는 모름지기 古聖先賢의 精義를 많이 참고해야 하니, 널리 돌아보고 따르면 臨證능력에 탁월한 定見이 있게 된다. 만약 識證방면에 밝

지 않다면 입을 열고 손을 움직임에 바로 어지러워진다.”고 하였다. 識證의 관건은 藥證과 方證을 반영한 본질적인 증상과 체질을 가리킨다. 임상적으로 증상 및 體徵이 명확하지 않으면 관찰 방법, 관찰각도, 臨證經驗의 부족·제한으로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역대 명의를 識證에 있어 독창적인 경험과 견해가 있었다. 특히 寒熱錯雜, 虛實疑似의 증상에서 寒에서 燠을 알고 虛에서 實을 변별하였는데, 이러한 名醫高手의 辨證하는 과정을 통해서 辨證論治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추억식 의안에서는 이것이 상세하다. 【案 11】과 같다.

【案 11】<sup>12)</sup> 社友인 韓茂遠이 傷寒하여 9일 이래로 입으로 말을 못하고, 눈으로는 보지 못하며,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四指는 모두 冷하니 모두들 陰證이라 말했다. 내가 진찰하니 六脈은 모두 없고, 손으로 腹按하면 두 손으로 막고, 눈썹은 찡그리고 고통스러워 하였고, 趺陽을 按했더니 大하고 有力했다. 이에 腹에 燥屎가 있음을 알아 大承氣湯을 주고자 하였다. … 下하여 燥屎를 6~7매가 나오니 말을 할 수 있고, 몸도 움직일 수 있었다. 按手하는 것이 다리에까지 미치지 않았다면 어찌 죽음이 드리워진證을 구했겠는가?

실록식 醫案은 識證관건의 서술에 있어 추억식 의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함축적이고 완전하지 않으니, 독자는 세심히 고려해야만 한다. 다음과 같이 몇 종류의 識證관건의 표현양식을 소개한다.

① 문을 열고 산을 보는 式. 案의 머리에 變證의 관건이 되는 徵狀을 명백하게 표시하고, 그런 뒤에 다시 病機를 천명하거나 或은 治法을 확립한다. 【案 12】와 같다.

【案 12】<sup>13)</sup> 氣喘하고 足冷過膝하고, 脣口乾하며, 鼻塞하고, 脈虛小하다. 下氣上逆한 것이니 病이 뿌리에 있는 것이다. 結痰이 項에 있는 것으로 함부로 清克해서는 안된다. 腎氣丸三錢을 鹽藥湯으로 삼킨다.

② 거짓을 없애고 진실만 남기는 式. 먼저 假象과 의문점을 나열하고, 識證관건을 적은 다음, 이에 따라 가설의 결론을 번복한다. 작자는 항상 ‘雖’, ‘惟’, ‘但’, ‘而’, ‘然’ 등의 虛詞로 말투를 전환하여 辨證論治의 사유과정을 반영한 후 眞象을 제시한다.

【案 13】과 같다.

【案 13】<sup>14)</sup> 하기만 하고 不熱하고, 便溏하고 脈細하며, 肢體面目이 모두 腫하니 모두 陽虛現象에 속한다. 오직 舌紅無苔만이 陰傷의 증후이다. 단지 口不乾渴한 것은 君火의 색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치료는 마땅히 引火歸元해야 한다.

附桂八味丸 加 鹿角霜, 黨參, 冬朮.

③ 원인이 먼저이고 결과가 뒤인 式. 먼저 病因이나 誘引, 病機를 적어내고, 뒤에 主證을 끌어내며, 아울러 해석과 분석을 하여 독자로 하여금 보는 것이 순리대로 문장이 이루어지게 한다.

【案 14】와 같다.

【案 14】<sup>15)</sup> 蘇씨 54세. 즐근 翻胃가 있어 원래는 버틸만 했지만 가을에 갑자기 驚憂하여 厥陽이 갑자기 올라 제어하지 못하여, 따라서 廢食不便하고, 消渴不已함이 心熱같으며, 嘔吐涎沫하고, 五味

12) 李中梓, 醫宗必讀,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 157.  
13) 柳寶詒, 柳選四家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22.  
14) 黃煌, 醫案助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33.  
15) 구병수·이동원, 儒門事親,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pp. 293-294.

중에 酸甘을 먹기 좋아한다. 肝陰과 胃津이 말라서 거의 다하였으므로 燥藥으로 通關하기 어렵다. 胃는 陽土에 속하므로 涼하고 潤해야 하고, 肝은 剛臟으로 柔하고 和해야 하므로 酸甘으로 肝陰을 구제해야 한다. 烏梅肉, 人蔘, 鮮生地, 阿膠, 麥冬汁, 生白芍.

2) 變法의 활용

徐靈胎는 “醫案은 서술함에 반드시 大症과 疑難症을 擇해야 하니,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한 법도를 세우고 心思를 열면 後學의 法이 된다”고 하였다. (『臨證指南醫案』咳嗽門批語) 오래된 병과 고질병에 대하여 의심나고 어려운 怪證은 前賢의 醫案 가운데 적지 않은 치료경험이 있으니, 立法의 이치에 대하여 세세히 研究하면 法을 얻을 수 있다. 【案 15】와 같다.

【案 15】<sup>16)</sup> 中氣虛寒하여 飮을 먹으면 瀉하고, 또한 火升하여 齒齟했다. 古人이 말한 巴의 胸中聚集한 殘火로 腹內에 積이 오래되어 沈寒한 것이다. 이는 마땅히 溫補中氣하여 土厚하게 하면 火는 스스로 수렴된다. 四君子湯 加 益智仁, 乾薑.

3) 古方의 운용

이른바 古方은 仲景方을 가리킨다. 仲景方은 ‘醫方之祖’로 받아들여졌으나 原方의 證을 설명함이 간략하고 또한 이런 經方의 藥性이 峻猛하여 정확하고 영활한 경지에서 古方을 운용해야만 효험이 있다. 前賢의 古方의 운용경험을 발체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두가지에 주의해야 하니, 첫째는 用方하는 과정을 파악하여 方證의 病機를 추측하는 것이며, 둘째는 어떠한 加減으로 方藥의 변화를 풀었는가이다. 【案 16】과 같다.

【案 16】<sup>17)</sup> 鄭아무개가 吐血을 한 사발하는 것을 孟英이 진찰하였다. 右關洪滑하고 自汗口渴하며 약간 한번만 움직여도 血이 上溢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가 脫할 것을 염려하여 補하고자 하였다. 孟英이 말하기를 脫하다면 오로지 내 문제이다 라고 하였다. 白虎湯 加 西洋參 大黃炭을 주었더니 한 제에 신속하게 나왔다.

4) 轉方의 방법

轉方은 前診의 진찰효과와, 질병 전변규를 파악과정과 순서, 응변능력 등에 중요하다. 醫案을 읽을 때 醫案 중 治法의 변경과 약물의 增減에 대하여 모두 깊이 생각하여 체득하여 名醫의 생각 방식을 찾아야 한다. “證은 機轉을 따르고 方은 證變을 따른다”고 하였으므로 醫案을 읽을 때에 轉方의 法에 대한 학습은 辨證論治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더하는 것 외에는 없다. 【案 17】과 같다.

【案 17】<sup>18)</sup>

胃虛氣熱 乾嘔不便. 橘皮竹茹湯 加 蘆根, 粳米.  
再診 : 嘔는 그치고 熱은 불러갔다.  
石斛, 茯苓, 半夏, 廣皮, 麥冬, 粳米, 蘆根, 枇杷葉.  
三診 : 大便不通.  
生首烏 玄明粉, 枳殼.  
四診 : 大便通하고 脈和하다. 오직 滋養이 마땅하다.  
石斛, 當身, 秦朮, 白芍, 丹皮, 炙草, 茯苓, 廣皮.

5) 經驗의 談

醫案은 實例와 결합하여 議論을 펴고 經驗체득을 기록한 것

이다. 이러한 것은 추억식 醫案 중에 이와 같은 경험담이 많다. 【案 18】과 같다.

【案 18】<sup>19)</sup> 한 어떤 노인이 나이는 80에 가까운데 겨울철에 傷風했다. 面赤氣逆이 있고 煩燥하여 편안하지 않은 象이다. 孟英이 말하기를 이 喻氏는 이른바 傷風에 또한 戴陽證이 있는 것이니 모호하게 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東洋人蔘·細辛·炙甘草·熟附片·白朮·白芍·茯苓·乾薑·五味·胡桃肉·細茶·葱白으로 한 제를 복용한 후에 나왔다.

6) 劑型和 복용법

劑型和 복용법은 치료효과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徐靈胎가 설명하기를 “煎藥의 法은 가장 깊게 나아가야 하니, 약효의 유무가 전부 여기에 있다”고 하였다. 歷代 名醫의 醫案을 종합적으로 관찰해 보면 이러한 내용이 풍부하다. 【案 19】와 같다.

【案 19】<sup>20)</sup> 吳西. 瘡을 앓아 寒微熱甚한데, 10여일이 되도록 낫지 않았다. 孟英이 진찰하니 脈滑長하여 大劑인 白虎湯을 주어 疏하였다. 큰형인 廉中이 말하기를 沈·顧 두 사람은 모두 이 方으로 主하였지만 거듭 복용하여도 효과가 없었다고 하였다. 孟英이 方을 보니 湯은 비록 白虎이지만 石膏는 量이 적고 또 煨하였고, 곱하여 米를 쓰지도 않았다. 因하여 그 형에게 말하기를 湯이 비록 같지만 君藥을 重用하지 않았고 米를 去하고 花粉·竹茹 등을 가하였으니 그 힘이 같지 않다고 말하였다. 廉中은 크게 깨달았고, 복용하니 신속하게 나왔다. 이는 服藥은 한갓 湯의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7) 藥物의 劑量

藥物劑量은 3종의 유형 외에는 없으니, 重劑·輕劑·常規劑量 등이다. 醫案을 통하여 重劑와 輕劑의 사용법을 알 수 있다.

(1) 重劑

常規劑量을 몇배 초과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危急重症의 醫案에 보인다. 重劑는 힘이 크므로 능히 아주 급한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邪氣가 方盛하고 正氣는 衰하지 않으므로 病程은 단순하고 변화는 비교적 적으며 환자의 체질은 充實해야 한다. 【案 20】과 같다.

【案 20】<sup>21)</sup> 周善教. 黃疸이 不透하였다. 麻黃六錢, 生石膏一兩, 炙甘草二錢, 生薑三錢, 紅棗八枚.

(2) 輕劑

보통 內傷久病·體質柔弱에 보이고, 혹은 外感熱病으로 病이 上焦에 있거나 혹은 濕熱이 交阻한 자이거나, 혹은 疾病病機가 비교적 복잡하여 大劑로 공격할 수 없는 자에게 쓰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胃氣強弱의 정도를 보는 것이다. 胃氣弱한 자의 藥量은 輕해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胃氣를 쉽게 상한다. 【案 21】과 같다.

【案 21】<sup>22)</sup> 아무개 21세, 讀誦은 몸은 가만히 있고 마음만 움직이므로 가장 쉽게 耗氣損營하여 心脾로 치우침이 많고, 불시에

16) 柳寶詒, 柳選四家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8.  
17) 王士雄, 王孟英醫案, 서울, 의성당, 1994, p. 50.  
18) 柳寶詒, 柳選四家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31.

19) 王士雄, 王孟英醫案, 서울, 의성당, 1994, p. 13.  
20) 王士雄, 王孟英醫案, 서울, 의성당, 1994, pp. 141-142.  
21) 黃煌, 醫案助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78.  
22) 姜계성·구삼희·김재영 편저, 葉天士臨證指南醫案, 서울, 정담, 1998, p. 95.  
23) 黃煌, 醫案助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88.  
24) 程杏軒, 杏軒醫案并按, 서울, 의성당, 1988, p. 99.  
25) 黃煌, 醫案助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p. 91-92.

神煩心悸하고 頭眩하며 腕悶하여 왔다. 調養하여 營陰을 灌溉하면 伸陽이 升越하지 못하며, 絡血이 滯요하기를 두려워하라. 淮小麥三錢, 南棗肉一枚, 炒白芍一錢, 柏子仁一錢半, 茯神三錢, 炙草四分.

8) 誤治의 원인

誤治 醫案은 초진에 醫者가 잘못 치료한 것을 다른 의사가 治함에 前醫의 잘못을 찾아서 治한다. 또한 초진시에 辨證을 잘못된 것을 재진시에 개정하여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구하는 것이 있다. 이런 醫案은 잘못된 원인을 연구하고, 잘못된 이치를 救하여 辨證論治의 수준을 올리고, 세밀한 진료에 도움이 된다. 【案 22】와 같다.

【案 22】<sup>23)</sup> 한 스님이 心悸善恐한데, 補陽心神的의 약을 두루 복용하여도 응하지 않아, 天王補心丹을 복용하였더니 며칠이 지나서 心悸善恐이 극렬해지고 面目四肢에 미미한 浮腫이 있어 이에 石頑에게 치료를 구하였다. 形肥白不堅한 것을 살피고 그 診脈은 濡弱滑하니 이는 氣虛로 痰飲이 膈上에 浸漬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導痰瀉에 參·桂의 通陽氣하는 약을 조금 加하여 주었더니, 몇번 복용하고 悸恐이 모두 없어졌고, 다시 六君子 加 桂한 것을 丸을 하여 調補中氣하였더니 편안해졌다.

9) 單方驗方의 활용

名醫 醫案 중에는 실용적인 驗方單方이 허다하니, 이러한 것은 살아있는 생활의 경험으로, 대다수가 민간이나 古醫籍으로부터 나와서 평의의 탐구와 임상사용을 거친 것으로 신용도가 비교적 높다. 【案 23】과 같다.

【案 23】<sup>24)</sup> 柴侗某가 처음에는 腹脹하고 二便不利로 아픈데 내가 胃痞의 屬을 써서 주었더니 조금 효과가 있었다. 渠는 빨리 치료하고자 하여, ... 臍이 차서 滿病이 생하니, 桂·附·薑·黃로 맹렬하게 했더니 脹이 심해져서 腹이 항아리를 품은 것 같고, 배꼽이 돌출되며, 口乾하고, 소변이 먹물처럼 떨어지니 살아날 이치가 없다고 생각됐다. 내가 말하기를 너의 病은 濕熱이 內蘊하여 單脹이 됐는데 다시 많은 약을 먹어 草木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 乾鷄屎 一升을 炒해서 갈아서 나눠서 몇번 먹고, 매번 大黃 一錢을 五更에 清酒에 煎服해서 효과가 있으면 다시 상의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10) 醫論醫訓

醫案 중에는 議論, 혹은 針砭의 痲단이나, 혹은 後學을 訓導하거나, 혹은 옛 뜻을 闡發하는 것이 많으니, 한편 한편이 작은 論文과 같다. 이는 初學者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의학이론 및 醫德修養을 강조한 것이다. 【案 24】와 같다.

【案 24】<sup>25)</sup> 膏方之制는 仲景이나 孫思邈의 책에 보이지 않고 金元四大家 또한 있지 않다.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실제로는 明代부터 시작하였으니, 血肉有情의 物을 중시하고, 虛羸不足한 자가 하나의 새로운 길이 되었다. 지금 『韓氏醫通』을 고찰해

보면, 실로 膏方은 虛勞를 치료하는 嚆矢가 되었고, 한 병으로 인하여 약을 쓸 때도 조금도 난잡하지 않았다. 내려와 現代의 膏方에 와서는 富有한 자의 '安慰品'이 되어, 寒熱溫涼 龍潛動植을 一方에 모아 단지 높고 貴한 것을 구하고, 병에 적중하는 여부는 계산하지 않았다. 본 醫室은 힘써 이런 폐단을 없애고자 辨證用藥에 藥味의 많음을 구하지 않아, 정미한 것을 취하여 쓰는 것이 크고, 다시 멀리 서양의 호르몬·비타민 등의 實證을 참고하여 本方을 만들었다. ...

결론

醫案은 환자의 症狀·病因·脈象·舌象·病機·診斷·轉變·치료 원칙·주의사항 등을 분석하여, 약물의 명칭, 분량, 포제방법, 복용법 등의 치료방법을 기록한 자료로, 유형에 따라 實錄式·追憶式·病歷式 醫案으로 나누어지고, 읽는 방법에 따라 順讀法·逆讀法·理讀法·比較法·統計法·推讀法·評讀法 등으로 나누어진다. 醫案의 학습효과에 대하여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醫案은 의학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임상자료로, 임상가에게는 변증론치에, 학자에게는 의가의 학술사상의 실제적응에 대한 중요한 참고서적이다. 醫案을 통해서 의료 수준을 평가하고 醫家가 得失한 실증적인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둘째, 醫案은 형식이 자유롭고 그 내용도 다양하며, 의안을 학습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내용파악과 임상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醫案을 학습하면 識證의 능력을 증진하고, 變法의 활용 및 古方의 運用, 轉方의 방법 등을 익히며, 經驗의 談, 劑型과 복용법, 藥物의 劑量, 誤治의 원인, 單方驗方의 활용, 醫論 醫訓 등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등, 다방면에서 도움이 된다.

참고문헌

1. 黃煌. 醫案助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2. 沈仲理 主編. 丁甘仁臨證醫集, 上海,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1999.
3. 강계성·구삼희·김재영 편저. 葉天士臨證指南醫案, 서울, 정담, 1998.
4. 柳寶詒. 柳選四家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5. 구병수, 이동원. 儒門事親,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6. 劉更生 編. 醫案醫話醫論名著集成·洞溪醫案, 北京, 華夏出版社, 1997.
7. 『中醫雜誌·祝味菊醫案』 10, 14, 1982.
8. 李中梓. 醫宗必讀,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9. 王士雄. 王孟英醫案, 서울, 의성당, 1994.
10. 程杏軒. 杏軒醫案并按, 서울, 의성당, 1988.